

## 독일 통일 후 내적 통합 - 성과, 도전 그리고 전망

악셀 슈미트 괴델리츠, 동서포럼 이사장 및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전 직원

구동독의 붕괴는 이와 관련된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당시 통일이 될 경우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 관해 아무런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서독 정부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대처했다. 하지만 22년이 지난 지금, 독일 통일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겉으로 보면, 동독은 현대적인 산업국가이고 이 지역의 기반시설은 서독과 견줄 만하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아직도 서독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동독과 서독 시민들의 내적 통합을 위해 노력을 했으나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 내적 통합 과정에서 특히 무엇을 다르게 했어야 하며, 그럴 경우 얼마나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에서 통일이 될 경우 이를 위한 해법을 찾아 보려고 한다.

2012년 8월

## 경제 성장

오늘날 동독 지역을 운전하면서 돌아보면, 구동독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거의 폐허에 가까웠던 고색창연한 전통적인 도시들은 남북 전역에 걸쳐 새롭게 단장되었다. 지방에서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새롭게 단장하였다. 일반도로, 고속도로 그리고 철도는 부분적으로 오히려 서독보다 더 잘 되어 있다. 학교, 대학, 병원, 복지 주택, 공공건물, 운동시설과 공항 등 무엇을 보든지 모든 것은 새롭고 양호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오염원도 처리되었다. 구동독 시절의 자동차는 매우 드물게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영양상태도 좋고 옷도 잘 입고 다닌다. 약 1천 6백만 명의 동독 시민들은 한 번 가입한 적도, 가입할 수도 없었던 서독의 연금보험 혜택을 서독인과 동등하게 받고 있다. 1990년 이후 구동독인은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자유선거에서 정치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연방과 주정부가 세워졌고, 법률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사회 보장제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꾸준한 노력과 창의력에 힘입어, 그리고 약 1조 6천억 유로의 비용을 투입한 결과 불과 21년 만에 가능해졌다. 겉으로 보면 통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래 없는 성공 사례이다. 그러나 경제 수치를 보면 이러한 성공 사례에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

1990년 콜 총리는 수 년 내에 서독과 동독의 생활수준이 비슷해질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1990년 콜 총리는 수 년 내에 서독과 동독의 생활수준이 비슷해질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009년 동독의 GDP는 서독의 73% 수준이다. 통일 직전 동독의 생산성은 서독의 25%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75% 수준이다. 동독 경제는 서독 경제를 따라 잡고 현대화하기 위해 엄청난 과정을 거쳤다. 그렇지만 동독은 2019년까지 연방 정부와 서독 주정부의 엄청난 규모의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 “새로운” 연방주들은 “과거” 독일헌법에서 당연히 보장되었던 동등한 삶의 수준을 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다.

## 동독 시민 대다수가 느끼는 사회경제적인 상실감과 소외감

그러나 이러한 약간의 오점만으로는 70%의 동독인들이 자신을 2류 시민으로 느끼는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90% 이상의 시민들이 구동독 사회에서 다시 살기를 원하진 않지만 초기의 행복감은 곧 사라지고 분열과 실망이 퍼져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통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약간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통일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인이 어느 쪽에 속해 있든지 모두 독일인일 뿐이며 정치적, 행정적, 기술적 또는 경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통일 후 곧 우리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지를 깨닫게 되었다. 다른 사회체제에 내재된 생활 방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차이점은 통일 초기 극도의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독의 강력한 의사 결정권자가 도입한 경제, 사회, 정치의 변화는 대다수 동독인의 삶을 심각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동독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가 되어서야 많은 동독 시민들은 동독인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

둘째로, 우리가 예상했던 많은 부분이 틀렸다. 동독인들은 통일 이후 구동독 시절 그들에게 익숙해 있던 안정적인 평생 직장, 저렴한 주택 비용과 공공 교통 그리고 기본적인 식량 원조와 같은 사회주의의 혜택과 자본주의의 혜택 모두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여행의 자유와 마르크화 그리고 시장경제 사회인 서독에서 구입하고 싶었던 무한한 소비제품들을 기대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대대적으로 엄습한 것은 대규모 실업이었다. 통일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구동독의 퇴락한 기업 중 3분의 2가 문을 닫았다. 서독으로 시장이 열리면서 이들은 경쟁력을 상실했다. 동독의 모든 공공 자산을 관리하는 독일 신탁관리공사는 생산 공장, 부동산, 농토 등을 서둘러 처분하였다.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공장 문을 닫아야 했다.

동독인들은 실업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실업수당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40세에서 60세가 중심인 세대는 실업, 불확실한 직업 유지, 직업 창출을 목적으로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시직 취업, 그리고 반복되는 실업 등과 같은 임시적인 근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불어, 정치, 민간기업, 공공기관, 과학, 방송 영역의 고위 관리직은 모두 서독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이 자리는 재정적으로 특별 수당을 지원 받은 약 3만 4천 명의 과전공무원으로 대체되었다. 이들은 동독의 풍습과 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 사회주의 계획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한 독재체제에서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불과 몇 년 안에 이루었다. 하지만 당시에 이러한

---

서독의 강력한 의사 결정권자가 도입한 경제, 사회, 정치의 변화는 대다수 동독인의 삶을 심각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동독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가 되어서야 많은 동독 시민들은 동독인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

---

급격한 전환이 구동독 시민들의 인성이나 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앞서 말한 성공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주목할 만한 성공 이야기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동독의 실업률은 12%로 서독의 2배 가까이 된다. 최저 임금 부분도 상황은 비슷하다. 동독인들은 같은 일을 하는 서독인들과 비교했을 때 17% 낮은 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젊고 활동적이며 양질의 교육을 받은 대다수 젊은이들, 그리고 특히 동독 여성들이 서독으로 이주한다. 따라서 동독의 연방주에서는 백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었다. 투자 자금의 95%를 서독의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많은 동독 시민들은 구동독을 정리하는 과정이 불공평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독일 최고 경영자 층의 5%만이 전체 인구의 20%가 사는 동독 출신이다. 현 수상은 동독 출신이지만 내각 장관, 대법원 법관, 일류 편집장, 주식 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최고 경영인 중 동독 출신은 없다.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분야 교수들 95%가 서독 출신이고, 이러한 상황은 동독의 대학에서도 유사하다. 동독인들은 통일 후 22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내적 통합으로 가는 긴 여정

---

표면적으로는 느낄 수 없고 겉으로는 동서독 사람들이 평화로이 함께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동서독 사람들 사이에는 모종의 이질감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일부 젊은 세대들에게는 덜하나, 특히 편견이 심한 나이 든 사람과 실업자 그리고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하다.

---

결과: 표면적으로는 느낄 수 없고 겉으로는 동서독 사람들이 평화로이 함께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동서독 사람들 사이에는 모종의 이질감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일부 젊은 세대들에게는 덜하나, 특히 편견이 심한 나이 든 사람과 실업자 그리고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하다.

이런 서독 시민들에게 동독은 수역을 쏟아 부었고 아직도 더 지원해 주어야 하는 “암흑의 독일”이다. 그런가 하면, 서독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서독 사람들은 오늘날의 동독 시민들이 이전처럼 그렇게 불평하진 않지만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말한다. 서독인의 눈에 “공산주의” 좌파 정당이 몇몇 구동독 지역에서는 여전히 3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은 국민 정당이 된 반면, 서독에서는 연방 하원의 의석을 얻는데 필요한 5%의 득표율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좌파 정당 내에서도 통일은 없다. 그들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서독 당원들은 동독의 당원들에게 벌거벗은 실용주의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동독 당원들 또한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서독 당원들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좌파 정당의 대의원 회의에서는 “증오”가 넘쳐났다.

노동계에서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다수의 동독인들은 자신들이 서독인보다 더 낫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들 못지 않게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독의 고위직은 여전히 서독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서독인들이 동독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기네들끼리 교류하고 있다.

하지만 동독 시민들 눈에 서독 시민들은 때론 거만하고, 잘난체하며, 연대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다. 서독 시민들은 “자기 자신을 멋지게 포장해서 내세울 줄” 안다. 이들은 시장경제 사회에서 성장했고, 노동시장에서 운신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들은 자기의 뜻을 무자비하게 관철시키며, 계산적이며, 항상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의구심도 증가하고 있다. 동독인의 실업률은 몇 년간 많이 증가했다. 동독 시민들은 수입과 재산의 불공평한 분배를 이해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다. 구동독 시절에 비판적으로 보거나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더 따뜻하게 보인다. 그래서 서독의 눈으로 본 구동독에 대한 평가, 즉 SED 독재, 불의한 국가, 감시 통치에 대해 많은 동독 시민들은 더 이상 이런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구동독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향수에 젖은 사람이라고 비방 당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은, 정치적 문화, 가치 지향, 민주주의 이해 그리고 정치적 입장의 측면에서 보면, 내적 통합에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오늘날까지 흡슈타인주와 바이에른주의 차이가 정상적인 것처럼 향토적, 지방색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다른 사회 질서에서 가졌던 교육과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은 상이한 체제에 기인한다. 새로운 체제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에만 이런 차이가 감소하거나 제거될 수 있다.

### 한국 통일을 위한 해법

어떤 부분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을 좀더 잘할 수 있었을까? 만약 두 개의 한국이 통일을 한다면, 한국인들은 우리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독일 통일은 갑자기 예고 없이 이루어 졌고 누구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 50년대와 60년대에 서독의 정부부처에서 통일 시나리오를 상세하게 준비했지만 서독이 긴장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독인들이 위협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 문건들을 모두 폐기했다. 견고한

---

노동계에서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다수의 동독인들은 자신들이 서독인보다 더 낫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들 못지 않게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독의 고위직은 여전히 서독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서독인들이 동독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기네들끼리 교류하고 있다.

---

믿음을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좀더 많은 경험을 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많은 일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이 일어날 것을 상정할 경우,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 통일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존중, 화해와 접근을 중시하고자 한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한국의 통일이 반드시 독일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

장기간 대규모의 현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약한 쪽의 경제가 즉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개발과 성장을 독려하고 직장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 특구를 지정하여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

1. 장기간 대규모의 현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약한 쪽의 경제가 즉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개발과 성장을 독려하고 직장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 특구를 지정하여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2. 자산 소유권 시스템은 중요한 이슈이다. 구동독 사람들은 매우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토지, 공장, 자원 등은 모두 공공 자산이었고, 국가가 관리했다. 통일 이후 다시 사유화하는 과정은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였다. 예전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집과 토지를 찾으려고 전력을 다해 투쟁하였고, 통일 이후 오랫동안 서독과 동독의 기류에 악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과거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좀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문제는 열린 토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전 토지로 돌아가서 정착하고 재건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배상이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대량 실직과 지속적인 모멸감을 주는 것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새로운 직장을 빨리 찾은 동독인들은 그들의 소득으로 새로운 삶을 꾸리고 한 단계 높은 소비와 여행을 즐길 수 있었으며 훨씬 빠르고 성공적으로 새로운 독일 사회에 동화될 수 있었다.
4. 가능하다면 양쪽 출신의 국민들이 함께 근무를 해야 한다. 베를린에서는 동독과 서독 출신의 혼합된 경찰 순찰대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교 선생님들도 함께 팀으로 작업한다. 서로 교류하고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기회는 가능한 모두 현실화 해야 한다. 관리직급과 대리직급은 모두 양쪽 출신의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는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
5. 국민들에게 너무 급격한 체제의 변화는 감당하기 어렵다. 만약



새로운 삶과 근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들을 제외시키지 말고 이들에게 좀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깨닫고, 배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져야 한다. 평균적으로 양쪽 국민들의 지적 능력은 비슷하며 새로운 시작의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주고, 확신을 심어주며 그들의 잠재된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6. 독일에서는 새로운 직업과 근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시키지 않은 채 신연방주의 직장에 전문가를 파견했다. 이것은 잘못된 조치였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전문성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함께 일할 동료들이 살고 일해 왔던 시스템과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충분한 준비를 시키지 못하여 인간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켰으며 이는 우리의 재건 노력뿐만 아니라 동서독인들이 동반 성장하는 데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7.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체제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민감한 쟁점으로서 전지전능하거나 독선적인 태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가치 체계에서 성장한 사람에게 그 국가가 붕괴하고 새로운 가치체계가 갑자기 도입되었을 때 과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독일에서는 철저히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꾸릴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들의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와 관련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새로운 시민들은 제도와 새로운 사회 체제의 내부 메커니즘과 가치체계에 익숙해 지기 위한 종합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8. 독일 통일 직후 당시 의회 의장이자 그 자신이 구동독 출신인 볼프강 티어제는 독일의 양쪽 시민들에게 서로 삶의 얘기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독일의 양쪽에서 온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베를린 사무소의 소장으로서 나는 이러한 제안에 따라 동독인과 서독인들의 첫 번째 삶의 이야기 나눔을 실행하였다. 나의 목적은 다른

---

독일에서는 철저히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꾸릴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들의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체제에서 살아온 각각의 삶에 대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넓힘으로써 선입견을 깨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놀랍게도 성공적이었다.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동안 모든 참여자는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참여자를 추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동서독 출신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류의 성공 비밀은 아주 간단한 원칙에 근거한다. 누구도 말하고 있는 사람을 방해할 수 없으며, 과거의 행동을 평가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는 나만의 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진실도 있다”라는 모토에 따라 상대방에게 끝까지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구동독의 국가안전부 요원이 그 시절의 정치범을 만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통과 불가능해 보이던 선입견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뇌에 대한 연구에서는 합리적 판별이 가능한 인식과 감성이 합쳐질 때 뿌리깊은 선입견은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그 동안 1천 8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토록 감동적인 주말 토론 그룹에 참여했다.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행사를 독일 전역에서 시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실수였다. 왜냐하면 이 행사는 시작부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나 정치적 생활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선입견을 없애고 이해의 다리를 놓는데 지속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크리스토프 폴만,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신진욱 안두순 안석교 안인경 이삼열 정범구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info@fes-korea.org

<http://www.fes-korea.org>

FES Information 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korea.org>)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2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